

2024. 3. 20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

공원부장

허현수

3780-0627

녹지관리과장

이무림

3780-0860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담당자

이한솔

3780-0848

### '한강공원', 봄꽃 가득한 꽃대결로... 봄꽃 6만 8천본 심는다

- 한강공원 총 36,760 $m^2$  면적에 봄꽃 8종 6만8천본 식재, 꽃씨 4종 690kg 파종 완료
- 여의도·잠실한강공원 등에 팬지, 데이지 등 봄 알리는 꽃 화단, 화분 형태로 조성
- 오는 5월엔 반포 서래섬·광나루 등에 유채꽃밭, 자전거도로변 꽃길 등 감상

-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봄기운 가득한 시민들의 여가·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채꽃, 팬지, 데이지 등 다양한 봄꽃을 심고 꽃씨 파종을 완료했다. 한강공원 곳곳은 이미 향기로운 화단이 조성됐고 이번에 파종한 꽃씨들이 자라 올봄 반포 서래섬과 광나루는 유채꽃밭으로 한강변 주요 자전거도로변은 꽃길로 변신한다.
- 서울시는 지난 12일(화)~15일(금) 한강공원 총 36,760 $m^2$  면적에 봄꽃 8종, 총 6만 8천 본, 꽃씨 4종·총 690kg을 파종했다고 밝혔다.
- 봄꽃 8종의 경우 팬지, 비올라, 데이지, 마가렛, 오스테오스펠멈, 가자니아, 루피너스, 꽃양귀비로, 봄을 알리는 꽃들이다. 10개 한강

공원 총 1,650 $m^2$  면적에 식재됐다. 화단부터 화분 형태의 꽃밭 등으로 조성돼 같은 종류의 꽃도 방문하는 한강공원마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.

- 예컨대, 여의도한강공원 천상의 계단을 찾으면 하얀·노란색 조합으로 아기자기한 자태를 뽐내는 데이지꽃을 비롯해 빨간·노란색으로 알록달록한 꽃양귀비, 보라색 팬지 등 봄꽃 8종을 원형화분으로 만날 수 있다. 잠실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는 같은 종류의 꽃들이 화단으로 조성돼 있다.
- 이번에 파종한 꽃씨 4종은 유채꽃, 백일홍, 꽃양귀비, 수레국화다. 서울시는 유채꽃의 경우 26,600 $m^2$  면적에 총 520kg을 심었고, 나머지 3개 꽃씨는 양화안내센터 앞 등 주요 자전거도로 변 23개소 8,510 $m^2$  면적에 170kg을 뿌렸다.
- 오는 5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을 비롯해 광나루한강공원, 난지한강공원 전원풍경단지를 방문하면, 봄의 전령 노란 ‘유채꽃’ 물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.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변 꽃길을 따라 싱그러운 봄 내음 맡으며 라이딩도 즐겨보면 어떨까?
- 서울시는 매년 한강공원의 주요 광장, 녹지대, 산책로, 자전거도로, 화단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마다 각 계절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다양한 꽃들로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.
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올봄, 한강공원을 방문하면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방문객들이 한강공원에서 산뜻한 봄 향기 맡으며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. 서울시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[붙임] 참고 사진

□ 식재 봄꽃 8종

팬지	비올라	데이지	마가렛
			
오스테오스펠럼	가자니아	루피너스	꽃양귀비
			